

잠룡들 ‘기본소득제’ 주목…복지공약 화두

이재명·박원순 “적극적” 文·安 “공감하지만 신중”

대선 최대 쟁점 가능성 … 선심 공약·자원조달 논란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앞다퉛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내수침체 극복과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 사회안전망 부족 등에 대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정책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서 기본소득제 문제가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발써 막대한 자원 조달 논쟁과 함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고 조세체제와 복지체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 6월

초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리고 ‘촛불 정국’이 찾아들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제를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 구직기

? 기본소득제=모든 국민에게 소득수준과 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똑같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분배체계. 국내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재원은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장기 침체 국면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적 현실을 감안,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중당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기본소득의 가치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5일 “기본소득주

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도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기본소득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민중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본소득제 관련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당장 도입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에 갖는 직업구조의 대변화와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관계와 재원에 대한 논의 등을 면밀히 진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기 예수 탄생 축복 성탄 미사

을 축복하는 성탄절 기념미사를 올리고 있다.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천주교 성직자와 신도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기념미사를 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럽 곳곳서 ‘기본소득’ 실험

스위스 ‘300만원 지급안’ 국민투표서 부결

핀란드·네덜란드·영 검토 활발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성적인 저 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을 겪어왔다. 특히 북유럽은 경제적 무기력증을 탈출할 해법의 일환으로 1980년대 일부 좌파정치 세력의 주도 하에 기본소득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유권자 76.9%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스위스는 지난 9월 25일에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국민투표에 넘겼다. 하지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스위스 국민이 두 번의 투표를 모두 부결시킨 건 전반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은데다 중세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을 당장 10% 더 받거나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때면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핀란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핀란드의 기본소

득’ 보고서를 보면,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이 440유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는 봇물이 터졌다.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모든 성인에게 62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트레흐트시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이 980달러를 제공받거나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한 다음 돈을 주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경우 추가로 돈을 주거나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만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등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할 계획이다.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에서도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가 지난 6월 영국 하원에서 발표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면, 이 단체는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7000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000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000원)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올 최고 시책 ‘에너지밸리’

남도문에 르네상스 등 4건 우수시책

전남도가 2016년에 추진한 시책 가운데 ‘에너지밸리 500개 기술 선도형 기업유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25일 “전남도 각 실·과와 사업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총 67건의 주요 시책 가운데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최우수 시책은 ‘에너지밸리 500개 기술 선도형 기업유치’, 우수시책은 ‘남도문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서민배려 시책 발굴·시행’, ‘전국 최초 고독사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4건이 선정됐다.

‘에너지밸리 500개 기술 선도형 기업유치’ 시책은 에너지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지활동을 전개해 세계적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광주시, 한전 등과 협력해 2015년부터 2년간 에너지 관련 17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 기업의 조기 투자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지난 11월말 현재까지 75개 기업이 실제

투자를 했다.

‘남도문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영광 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 유산을 현대적으로 승화해 제2의 남도문에 전성기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이 반영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은 농어촌 분만 취약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공공기관이 운영해 도민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서민배려시책 발굴·시행’은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찾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정과 나높이 있는 26개 시책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각각 후한 점수를 받았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초 고독사 지킴이단 구성·운영’도 우수시책에 뽑혔다.

장려시책으로는 ‘전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3대생협 유치를 통한 청년 농업인 일자리 창출’, ‘섬의 가치 재조명, 섬 자원 활용 극대화’, ‘섬 지역 휴대전화 난청 해소사업’, ‘에너지친 산업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 5건이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반기문, 박연차 23만달러 수수설’ 파장

시사저널 보도에 뚝뚝 “사실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시사저널은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을 비롯한 복수의 익명 관계자 증언이라며 반 총장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사자인 박 전 회장에서부터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최신호에 보도했다.

시사저널은 반 총장이 외교부장관이던 지난 2005년 5월 방한 중이던 응우옌 지 니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을 환영하기 위해 주최했던 한남동 공관 만찬 자리에서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만찬에 참석했던 박 전 회장이 20만 달러를 반 총장에 줬고, 지난 2007년초 반 총장 취임 후 뉴욕에서 ‘사무총장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가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반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 총장의 측근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의 측근인사도 “박 전 회장은 당시 만찬에 늦게 도착했고, 만찬이 끝난 뒤 일행 20여명과 함께 돌아갔다”면서 “반 총장은 이날 행사 중 박 전 회장과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구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쎈 나는 모른다는 거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여수 적금도~고흥 영남면 ‘팔영대교’ 27일 개통

여수시 적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잇는 연륙교인 ‘팔영대교’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 도서지역 주민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물류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따르면 팔영대교는 여수시와 고흥군

을 연결하는 11개 해상교량 중 백야대교와 화대대교에 이어 개통하는 교량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팔영대교는 2004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77억원이 투입됐다. 총연장 2.98km, 현수교로서 왕복 2차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fta.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월) 17:00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친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사(술려본)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일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조선대학교 대학원
산업통상지원부 지정 FTA전문인력 양성기관입니다.
(호남권조선대학교) / 수도권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지원자 우대 및 합격자 특전

- 광주·전남 산업체 근무자 및 관련 공공기관 재직자 우대
- 합격자 전원 재학기간(4학기) 동안 **합작기관특별장학금** (수업료의 1/2)과 각종 학술장려금 지원
- 전일제 연구생은 수업료의 2/3 지원
- FTA 및 무역전문가 팀리칭 수업 실시,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 현장실습 기회 부여
-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국내·외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모집요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